예산반영 광주 5% 전남 3%…대부분 연기·반쪽 전락

박근혜 정부 2년…지역공약 얼마나 이행됐나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호남 예산 홀대가 심각하다. 임기의 5분의 2를 마쳤다는 점에서 산술적으로 40% 수준의 진척을 보여야 정상이지만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15개 사업 중 정상 추진은 달랑 4개=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대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광주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등 7대 분야 15개 세부사업에 총 4조623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출범 2년이 된 현재 15개 중 정상 추진중인 것은 겨우 4건뿐이다.

예산도 2015년 반영 예상액까지 합해 2546억원으로 5.5%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절반에 가까운 1108억원은 이미 예정돼 있던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이다.

광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걸고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총 1조218억원

■ 박근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추진 현황 (단위:억원)

□ 광주

공약명	총사업비	국비반영액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10,218	629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3,411	125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1,140	0
아시아 문화수도 육성	4,455	1,108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2,227	429.5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20,304	120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4,481	135
총계	46,236	2,546.5

□ 전남

공약명	총사업비	국비반영액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24,731	600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	13,083	812
전남~경남간「한려대교」건설	5,040	10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1,660	25
우주항공기 체험 관광명소 구축	634	122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7,990	397
동북아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지원	3,714	172
총계	66,852	2,138

광주, 15건중 4건 정상 추진
전남도 국고지원 '0' 수두룩

중 629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은 3411억원 중 125억원만 배정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총 4455억원 중 1108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광주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은 총 1140억원 중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사업은 2227억원 중 429억5000만원,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은 2조304억원 중 120억원,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4481억원 중 135억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 15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와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탄소중립도시 조성, 경전선 철도고속화 사업, 광주외곽순환도로 사업 등 9개 사업이 부분추진되는 등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으며,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국립 민주평화공원 조성, 광주자원순환종합타운 등 3개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심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광융합 산업관련 포토닉스 컨버전스 2017, 5·18아카이브센터 건립,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3D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사업만 정상 추진중이다.

◇전남 공약 대부분 차기 정부로?=박근혜 대통령이 전남에 공약한 7개 분야 11개 사업과 관련 사업비 가운데 지금까지 3.2%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2013년 이전 투자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공약사업 중 상당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우려가 커졌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약속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 건설을 포함한 7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6852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6조4758억원이다. 978억원은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투자됐으며, 2014년에는 163억원, 2015년에는 997억원 등 모두 2138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전남도가 이들 7개 분야 11개 사업과 관련 요청한 사업비는 2014년 4213억원, 2015년 8580억원으로 모두 1조2793억원이었다. 올해 각각 1500억원을 요청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사업은 각각 600억원(2014년 불용예산 400억원 포함)과 52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또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요청액 30억원)의 경우 25억원, 과학로켓센터 구축(70억원) 1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5000억원) 100억원,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45억원) 10억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200억원) 10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개발 구축(50억원)만 100억원으로 요청액보다 많이 지원됐으며,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100억원),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 인프라구축(60억원),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복합센터 건립(25억원) 등은 2년간 예산 지원이 없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출신, 靑비서관 한명도 없고 장관은 달랑 1명

2년간 지역 인사 소외 심화

지난 2년 동안 '대탕평'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서는 호남은 없었다.

주요 권력기관의 장 자리는 고사하고 23일 현재 10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 또 17명의 장관 중 호남출신은 단 1명이다.

지난 2012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3실 10수석)에서 호남 출신 수석비서관은 이정현 정무수석과 이남기 홍보수석, 실장급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5월 당시 윤창중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사건의 여파로 이남기 수석이 물러나고 이정현 수석은 정무에서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석비서관은 1명으로 줄었다.

또 지난해 5월 세월호사건 여파로 김장수 안보실장이 사임하고 같은 해 6월에 재보선 출마를 위해 이 수석비서관까지 사임하면서 청와대 내에서 호남 출신 수석비서관은 씨가 마른 상황이다. 다만 전북 출신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김장수 실장의 바통을 이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돼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17부로 구성된 정부 부처 장관의 경우 현 정부 출범 당시 완도 출신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전북 출신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2명이 임명됐다. 또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김병관 장관 내정자로 교체될 예정이었으나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경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 37일만에 자진 사퇴함에 따라 유임돼 첫 내각에서는 3명의 호남 출신 장관이 있었다.

이후 진영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임명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방하남 장관은 지난해 6월 개각 때 함평 출신인 이기권 장관에게 바통을 넘기고 물러나 23일 현재 호남 출신은 이 장관 한 명뿐이다.

다만 지난 설 연휴 직전 부분 개각 때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으로 보성 출신인 임종룡씨가 발탁됐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구색 맞추기도 안될 정도로 호남 인사 소외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기권 장관을 제외하고는 호남 출신이라고 발탁한 다른 인사들은 무늬만 호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크루즈협의체 발족

광주시·관광공사 등 28개 기관…해외관광객 100만명 유치

전남도가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 체계를 구축했다. 관련 기관을 총망라한 크루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데 이어 24일에는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해외관광객 100만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000~3000명 단위로 움직이면서 소비하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3일 "오는 26일 오후 광주·전남의 크루즈 관련 모든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남도, 광주시, 목포·여수·순천·광양시, 지방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광주·전남협력지사), 관광협회, 항만공사, 여수엑스포재단, 상공회의소, 해운조합, CIQ(세관, 출입국사무소, 검역소), 선사대리점 등 28곳에 이른다. 크루즈 협의체는 향후 정례적으로 매년 2차례, 필요 시에는 권역별로 수시로 회의를 열고 크루즈 관광 발전방안 모색, 인센티브 지원, 국내·외 공동마케팅 및 송·환영 행사 참여,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논의하게 된다.

오는 7월에는 여수항에 크루즈 관광객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게 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수항에 15만t급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오는 3월 조기 완공을 추진중이다. 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쇼핑센터 신규 설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광주시를 비롯해 목포·여수·순천·광양시 등지의 백화점·유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부지면적 9만3088㎡에 지하 1층·지상 4층, 전체면적 5만1569㎡ 규모로 의류점포 250여개와 영화관, 예식장 등의 복합시설을 갖출 예정인 광양 LF아웃렛은 오는 2016년 개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마케팅에 나서는 한편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